

1. 3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기도와 전도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2. **헌신예배:** 오늘 오후예배는 교육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헌신기관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도님들은 참여하여 은혜 받으십시오.
3. **소망경로대학:** 금주 경로대학이 19일(금) 오전10시에 진행됩니다.
 > 금주 식사준비 봉사는 권사회에서 준비바랍니다.
4. **TV설교:** 담임목사님 주일낮 설교가 수요일 오후 6시55분 CBS기독교방송 TV강단 시간에 방영되고 있습니다(유선채널- 74번, 42번).
 라디오방송은 매주 화요일 새벽5시35분 FM 103.1에서 방송됩니다. 시청바랍니다.
5. **주일점심:** 오늘 점심은 손문옥안수집사님 가정(다음주는 조운기 안수집사님)
6. **각반 성경공부:** 중직자들과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실 분들은 참여바랍니다.
7. **금요기도회:** 3월19일 금요기도회는 제4여전도회 주관으로 모입니다(저녁8시).
 > 새봄을 맞이하여 금주 금요일 심야기도회는 영육을 강건케 하는 간절한 기도의 밤으로 신유집회를 갖습니다. 1부는 손종기 목사님의 말씀, 2부는 이수월전도사님의 기도회순서로 새롭게 진행합니다.
 >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8. **하루 교회숙직 실시:** 계속하여 숙직을 일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차질이 없도록 실시바랍니다(1층접견실, 카타쿰기도굴, 남여중보기도실에 온열난방 설치).
 > **담당자:** 주(한만희) 월(손문옥) 화(조운기) 수(한경택) 목(장기술) 금(최재현) 토(박의하)
9. **보리떡운동:** 성도님들이 작성한 헌금을 보리떡 운동이라 명명했습니다.
 > 전성도님들은 보리떡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066-107-313157(광주은행)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10. **컴퓨터교육:** 매주 월,화,수요일 오전9시에 홈스쿨에서 컴퓨터교육이 있습니다.
 >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 **집회참석:** 전라노회 삼천교회대책위원회에서 개최한 전도집회가 3월14일(주) 오늘 오후7시에 광주은광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강사는 이육화목사님입니다.
 > 교회에서 오후6시30분에 출발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12. **여전도회연합회집회:** 금주 3월17일(수)-18일(목) 오전10시30분부터 16시까지 신가은광교회에서 여전도회연합회 주최 특별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 여전도회 회원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13. **사랑의음악회:** 밀알심장재단에 주최하는 심방병어린이들기 사랑의 음악회가 본교회에서 3월21일(주) 오후2시30분에 개최됩니다. 위하여 기도바랍니다.
14. **다음주:** 선교헌신예배, 정기교육위원회로 모입니다.
15. **주일전도:** 여호수아, 1남, 1여, 2여전도회 전도주일(주공아파트7단지).
 > 남전도회-최지혁부목사, 여전도회-전순이전도사 인도로 실시바랍니다.
16. **주일심방:** 김명관 김충칠장로, 황정선 양혜숙권사(환우, 낙심자 심방)입니다.
17. **입원성도:** 조복임집사(동아병원) 박일순집사(성심병원) 김유정집사(전대병원) 김영숙모친(조선경권사 모친-아산병원) 육영란집사(서울대학병원) 정하섭장로-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순위	성명	기관	구역	주소	전화번호	접김이	인도자
10-19	김민정	유년		운남주공A 807-903	962-9822	김성훈	양혜숙
10-20	편찬돌아	10여	2	월곡1동 568-19 2층	010-6287-2364	이가영	임현옥
10-21	이배규	3남	27-1	남구 봉선동 1007-11	010-5571-4071	최재현	이수월
10-22	김숙희	7여	27-1	"	"	"	"
23-26	이준이, 이승이(고등), 이은희(초등), 이지학(유치부)			"	"	"	"
10-27	방문현	3남	27-1	한성A 205-407	011-627-1801	최재현	이수월
10-28	조명영	4여	27-1	"	011-610-9921	임현옥	"
29-31	권현심(사라), 방은수, 방정은(고등부)			"	"	유화평	"

한예수교 하남은광교회

일어나라 함께 가자!(마26:46)

담임 교역자
손종기 목사
(010-7283-8291)

교육위원회 헌신예배

3월은 전도의 달

* 매주 수요일 오후6시55분 CBS(TV 74.42) TV강단 주일낮 설교 방영
 * 매주 화요일 새벽5:35-5:55 CBS라디오(FM103.1) "오늘을 보람 있게"
 * http://www.hanamekch.com/ *E-mail: jkson9004@naver.com

◆시무장로: 이준호 김기태 정하섭
 김문옥 김명관 이현일 김병업
 이동만 객세중 송희중 옥 룡
 김충칠 최상운 김요상 김희중
 진영만 김대석

◆은퇴장로: 윤 석

◆ 찬양위원장: 옥 룡 ◆

【할렐루야성가대】

◆대장:객세중, 지휘:최재현(오광록)
 ◆반주:이은혜 · 김예슬

【마리아성가대】

◆대장:김문옥, 지휘:김유영(객지혜)
 ◆반주:김수경 · 계경숙

3/1-7 제123차 여리고작전 새벽기도회
 3/1 교역자산상기도회(교역자, 복지팀)
 3/7 후생위원회 헌신예배
 SFC,아브라함,리브가,한나여전도회 전도주일

3/14 교육위원회 헌신예배
 여호수아,1남,1여,2여전도회 전도주일

3/21 선교헌신예배, 정기교육위원회
 2남,3남,3여,4여전도회 전도주일

3/28 장학위원회 헌신예배, 월례회, 당회
 고난주간(29-4.2), 성금요일(2일)
 4남,5남,5여,6여전도회 전도주일

◆교 회: 953-3983, 070-7430-3983, 4 ◆목사관: 962-3301 ◆FAX: 952-1465
 ◆부목사: 최지혁 ◆강도사: 문종승 김성훈 ◆외국인근로자담임 석창원목사
 (010-3615-1638) (010-7617-4070) (010-8327-7655) (010-3604-8139)
 ◆전도사: 서향임 전순이 이수월 ◆하남은광홈스쿨: 강미순교육사
 (018-629-2785) (010-2999-7540) (010-2626-3513) (955-8291)

506-055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319-14

주일 낮 예배

1부 8시30분 사회: 손종기 목사
2부 11시 설교: 손종기 목사

조용한 준비 다같이 (반주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배의 부름 사 회 자

*개회 송영 성 가 대

*기 원 사 회 자

*찬 송 .. 27 (통27) .. 다같이

*성시교육 .. 제 11 문 .. 다 같이

*사죄확인 다 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찬 송 .. 91 (통 91) .. 다같이

기 도 1부 김요상 장로

2부 최상윤 장로

성경봉독 요3:16(신46)

찬 양 할렐루야 성가대

말씀선포 손종기 목사

“예수 안에서 영생”

기 도 다 같이

찬 송 .. 260 (통194) .. 다같이

봉 헌 다 같이

감사기도 설 교 자

*주기도송 다 같이

*축 도 손종기 목사

교회소식 영상광고

새신자 환영 다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제 찬송 .. 405 (통458) .. 다같이

- 서로 인사하며 교제 합시다 -

주일 오후 예배

[교육위원회 헌신예배]

오후 2시30분 사회: 이준호 장로
설교: 최지혁 부목사

열린찬양 / 실하쉬림 찬양단

대표기도 / 이동만 장로

성경봉독 / 잠 22:6(신935)

찬 양 / 호산나 성가대

특 송 / 교육위원회 일동

말씀선포 / 최지혁 부목사

“아이에게 가르칠 것”

헌 금 / 446(통500) / 옥룡 장로

교회소식 / 영상광고

축 도 / 손종기 목사

- 주일밤 성경통독 -

오후 7시~8시 (창세기)

삼일기도예배

저녁 7시30분 사회: 김문옥 장로
설교: 손종기 목사

찬 송 / 327(통361) / 다같이

대표기도 / 최옥기 권사

성경봉독 / 마6:9-13(신8)

특 송 / 제22구역원 일동

말씀선포 / 손종기 목사

“나라가 임하시오며”

헌금기도 / 208(통246) / 장현자 권사

광고축도 / 손종기 목사

새벽 5:00 인도: 손종기 목사

지난주 구역예배 보고

지구장	구역	모인곳	인원	헌금	성경	다음장소	구역장	전 화	우리는 돕는 선교사
제1지구장 이준호장로	1	마이라	6	15000		정은섭	김요상	954-3319	검면중앙교회/5만
	2	박영심	2	5000	14	양혜숙	양혜숙	951-2437	서부은광교회/15만
	3	김영숙	6	7000	210	송희중	송희중	953-7579	장산중앙교회/5만
제2지구장 김기태장로	4	김은희	3	5000			김태석	434-2827	연동은광교회/5만
	5	이현일	6	17000		최성자	이현일	952-5880	경동교회/5만
	6	전향남	7	13000	100	신점례	이동만	953-0774	금호동교회/5만
제3지구장 정하섭장로	7	윤경순	6	11000		김순심	조선경	952-1672	영광교회/5만
	8	박의하					박의하	954-4684	용산중앙교회/5만
	9	김혜중	6	6000	10	김복희	진영만	956-2902	노력도교회/5만
제4지구장 김문옥장로	10	오영자	5	5000		오금례	김경애	945-2713	남도시민교회/5만
	11	황생자	2	5000	31	김판심	최상윤	384-8475	서림교회/5만
	12	이동식	4	7000	93	신진성	김명관	961-9632	삼기중앙교회/5만
제5지구장 김명관장로	13	나채균	7	8000	250	최순희	김숙경	956-5064	세계포도원교회/5만
	14	윤정희	5	5000		임종만	서향임	951-2785	광주반석교회/5만
	15	이옥순	6	6000	57	최경순	최옥기	952-7101	오치은광교회/5만
제6지구장 이현일장로	16	이계자	4	6000		박자영	전순이	671-1109	오치은광교회/5만
	17	임순분		9000		강미순	조윤기	954-3784	사랑의교회/5만
	18	교 회	6	11000	157	정천호	강성명	942-3919	심미교회/5만
제7지구장 이동만장로	19	김기태	2	2000		박경남	김기태	952-8667	광덕교회/5만
	20	이준호	3	9000		이동만	이준호	952-8590	연화교회/5만
	21	양인숙	3	7000	34	백인숙	한만희	956-0484	운암평화교회/5만
제8지구장 곽세종장로	22	교 회	5	7000	30	고진희	김문옥	954-2660	구름다리교회/5만
	23	송병기	6	4000		김유정	김태호	01039778667	구름다리교회/5만
	24	이정순	11	13000	122	이복남	김종칠	953-9917	대전교회/5만
제9지구장 송희중장로	25	김은경	5	6000		박경희	서점순	961-8640	대전교회/5만
	26	안영철	12	10000	57	원철희	안영철	01050437055	송정은평교회/5만
	27	신철균	6	14000	150	김덕수	손종기	962-3301	나주신광교회/5만
제10지구장 옥 통장로	28	교 회	6	5000		교 회	서진옥	413-5357	아가페교회/5만
	29	오순애	4	8000		김막녀	김성훈	952-3304	미션21/5만원
	30	양정순	6	8000	60	임춘진	임춘진	962-8516	남악신광교회/10만
제11지구장 김종철장로	31	교 회	6	5000		김담호	유영만	961-3477	남악신광교회/10만
	32	조요셉	7	20000		허성복	김용덕	01026362114	군선교연합회/5만
	33	안수집사회					김영근	956-1538	중도실명자선교회/5만
제12지구장 최지혁부목사	34	권사회					임춘진	962-8516	중도실명자선교회/5만
	35	중등부	5				손성은	962-6487	오일환선교사/5만
	36	고등부	6				유화평	961-3477	오일환선교사/5만
제13지구장 최상윤장로	37	은광어린이	7	10000			임현옥	954-2360	CBS기독교방송/10만
	38	아남예수	8	10000			옥송주	954-2360	CBS기독교방송/10만
	39	영연스쿨	3				방정원	954-2787	CBS기독교방송/10만
제14지구장 손종기목사	40	대학부	6				김진선	953-3909	열방네트웍/5만
	41	청년부					김진승	961-9632	열방네트웍/5만
	42	교 회	7	12000	200	교 회	최지혁	385-1320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3 월 헌금위원 및 안내위원

다음주 봉사자

헌금	1부	옥 룽	다음주일 낮기도: ◆1부 진영만 장로 ◆2부 김희중 장로 다 음 주 일 오후 기 도 : 손 문 옥 집 사 다음삼일사회특송: 김태호 집사(23구역) 다음삼일기도: 김숙경, 헌금: 조선경권사 금주 3/20(토)청소: 1남, 한나여전도회 이번주(14)식사당번: 16, 17, 18 구역 다음주(21)식사당번: 19, 20, 21 구역
	2부	김문옥 최상윤 한만희	
안 내	이동만 서진옥 박동숙 박종관 이건국 고용주 이봉순 조선경 김숙자 권화숙 김순심 강춘자 정영옥 정순영 신은숙 송숙란 양선숙 우숙희 전운선 양재숙 황애자 임순분 김경애 조정화 박경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은 베다니였습니다(요 11:1). 누가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요 11:1). 성경에 이들의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일찍 부모를 여윌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아마 이들 오누이들의 삶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에 의하면 이 자매들 중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만누이었던 마르다는 억척스럽게 생활을 꾸려오면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반대로 무언가 내성적이고 사색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1. 마음이 분주할 정도면 잘못된 섬김입니다(눅10:40).

마르다는 길을 가는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기 집으로 모셔 들일 정도로 적극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모셔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모시는 즐거움에 사로잡히다 보니, 예수님보다도 그렇게 모시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분주하여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잘못은, 그가 적극적으로 활동적이었다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정상생활에 깊이가 부족하였다는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분주함으로 그 마음에 예수님 그분과 교제할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려 하다가 그만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2. 참된 섬김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것입니다(눅10:41-42).

참된 봉사와 섬김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또한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분주해져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은 없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는 것 자체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전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외치면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중심에 두지 않고 외칠 수 있습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지나치게 바쁩니다. 그래서 염려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성공 여부에 마음이 빼앗겨서 불안해집니다. 예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는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많이 차려놓은 음식상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음식이라도 당신과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음식은 몇 가지만 하거나 한 가지만 해도 족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그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라면 말입니다.

3. 어떤 봉사든지 예수님과의 교제를 그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눅10:42).

명상이나 묵상도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교제하는 것이 없이 그 체제가 목적이 된다면 잘못된 수 있습니다. 명상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우리를 염려케 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잘한 것은 정상생활과 묵상생활을 많이 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소통과 교통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함으로 예수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영향을 예수님께 부으면서 그 죽으심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전쟁 때문에 헤어져 생사를 모르고 오랫동안 안 그리던 부모형제를 찾아 해매는 혈육의 정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실감나게 해줍니다.

길고 긴 세월에 잊었던 그리움이 다시 소용돌이치고 서로를 찾아 해매다가 오래 전에 멈추어버린 지진 발길들이 이제 생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긴 세월에 몰라보게 변한 얼굴 속에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흘러내리는 눈물은 우리 모두의 눈물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깊은 이산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난 불행한 인생으로의 삶입니다.

1. 불행의 시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헤어짐입니다(사53:6).

본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도록 창조됨을 받았으나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잃고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부모와의 헤어짐이 수많은 비극과 눈물은 낳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우리의 삶은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된 해답과 만족을 얻지 못한 채 “이래서는 안 되는데...” ,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안 되는데...” , “다른 길은 없을까?” , “더 나은 삶이 있을 텐데...” 라고 끊임없는 의혹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그 어떤 것으로도 부모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잃은 우리의 마음은 돈, 명예, 권력, 쾌락, 사람...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잘 압니다. 또한 선을 행하기보다는 그르치고 실수하며 죄를 짓기 쉬운 자신임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2. 불행 속에서 계속 해매는 이유는 깨도를 벗어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롬3:23).

일단 길을 잘못 들어선 우리는 그 결과가 좋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히9:27)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마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눅15:16-17) 곧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성경은 알려 줍니다.

3.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요14:6).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4:6)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요19:30)고 선언하심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3:16)

맺는 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이 제거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복락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악이 되고 자신에게 비참한 형벌로 남겨지는 불신앙의 길에서 돌아서서 오직 참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나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날씨에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안 오며,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 흉수가 나는 등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날씨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이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나 큰 산에 오르는 등산가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날씨에 좌우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다가를 날씨를 미리 알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천기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16:3)라는 말씀과 같이 일기예보 보다 인생의 결국을 미리 아는 인생예보가 더 중요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9:27)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음같이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모든 죄의 구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듯” (전11:3)라는 말씀과 같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죄악이 뻥뻥한 구름과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죄 중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결국을 이렇게 예보합니다.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호13:3)

이 일이 언제 임하게 될지, 아침 안개처럼 은밀하게 임하게 될지, 저녁 광풍처럼 갑자기 임하게 될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것 이상 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없이 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그가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히9:28)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이유가 바로 범죄 한 인생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 한 인생을 지금 이렇게 먼저 믿는 자를 통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네 허물을 뻥뻥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사44:22)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시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시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요 5:24) 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생예보를 들으시고 지금 곧 주께로 나아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성경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행3:19)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행4:12)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딤후2:5)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3:16)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3:17) 라고 구원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이천 십년 삼월 십사일
담임목사 손 중기

기도의 무기는 승리와 패배 사이를 갈리게 합니다. 최고의 감주를 입고 강한 의지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무시하면 틀림없이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마치 이는 작전 없이 전장에 나가는 군인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싸우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참여하여 기도의 승리를 이룹시다. ※

찬양 및 합심기도	다	같	이
대 표 기 도	임	현	옥 권 사
특 송	제 4 여전도회	일동	
설 교	손	종	기 목 사
신 유 기 도 회	이	수	월 전 도 사

합심기도제목	
교 회	● 당회를 위해서(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소서)
	● 성도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기도 전도	● 일어나라 함께 가자! 2010년에는 주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일하게 하소서
	● 2010년에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지는 교회되게 하소서
개척	● 항상 기도하는 성도되어 영적전쟁 승리하게 하소서
	● 가족과 이웃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되게 하소서
직분	● 북한에 7개(신의주,평양,원산,함흥,청진,나진,고무산)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 인재, 물질, 지혜와 여건을 허락 하소서
	● 복지관건립과 복지사역을 위해 지혜, 인재, 물질 허락 하소서
교육 기관	●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충성하게 하소서
	● 2010년 임원들이 주님을 위해 충성, 봉사, 헌신하게 하소서
국가 선교	● 교육 기관의 학생들이 민족과 세계를 품는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 시간을 정하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되게 하소서
성도	●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하소서
	● 국가, 민족, 선교사, 미자립, 농어촌교회를 위해서
성도	● 병원입원성도, 군복무, 결혼준비, 취업준비, 타지역 생활자녀 위해
	● 행동으로 가족구원, 전도로 이웃구원, 헌신으로 민족구원, 풍성한 전도 열매 맺게 하소서, 질병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소서.

향기로운 예물

● 십 일 조

교역자 : 전순이 최지혁 손종기
 장로 : 김문옥 이현일 김요상 최상윤 이동만
 안수집사 : 서진욱 장기술 박의하
 권사 : 서금자 김복희 김막녀 문채숙
 집사 : 오남남 손상원 허성복 박금용 김유리 김선애 송병기 정영순 이은숙 양선숙
 이현순 정봉진 정순영 이병욱 오영자 윤경순 전경순 김성수 김천대 곽순심
 신수권 이현복
 ♥♥♥♥ : 김 범 조요셉 최중현 김재열 남혜민 이은혜

● 감사헌금

교역자 : 손종기 이수월
 장로 : 옥 룡
 안수집사 : 최재현
 권사 : 김순심 박경남 신점례 김숙자 장미옥 이정자
 집사 : 김변순 박종삼 강춘자 신철균 김영월 김인숙 양재숙 김 호 손상원 우숙희
 박경희 오금례 이현복 송병기 황숙희 김지현 김판심 한정자 정도경 민찬임
 김연채 김담호 나애순 송미경 황주영 옥승주 김혜진 이승호 윤광자 전경순
 기연님 김경식
 ♥♥♥♥ : 이영희 이영선 전기순 정해정 조용식 김 범 나 미 정순비 조리라 고광국
 김민균 노병호 이성노 김 은 이배규 김숙희 최현미 이용섭 무명5

● 선교헌금

교역자 :
 장로 : 김문옥 이현일
 안수집사 : 장기술 박동수
 권사 : 문채숙
 집사 : 오영자 김인숙 김 호 정순영 김상규 조정화 김영월 이은숙 한정자 강성명
 김달삼 최성자 박복임
 ♥♥♥♥ : 최중현 문귀만

● 복지헌금

이동만 김효식 양재순 김순심 김복희 이현일

● 일천번제 · 건축 · 생일 · 차량

최순희 김천대 김숙경 김재한 김중철 송희중 김영월 이재연 이재성 이정자 김영미
 조윤희 양재숙 손관우 손은정 이현일

인생의 '엔딩 크레딧'



대체로 사람들은 극장에서 영화가 끝나자마자 일어서서 나오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지만, 맨 마지막에 음악과 함께 오르는 자막이 엔딩 크레딧(Ending Credit)이다. 나는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끝까지 자리에 남아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마지막 여운을 더 음미한다. 영화에 출연한 배우만이 아니라 감독, 시나리오, 조명, 촬영, 소품, 의상, 음악... 수없이 많은 이들이 배후에서 수고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를 만든 이들에게 마음으로부터 박수를 보낸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런 훌륭한 영화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내 삶을 복되게 만들어준 사람들의 엔딩 크레딧이 반드시 보일 것이다. 바울의 엔딩 크레딧에는 바나바가, 디모데의 엔딩 크레딧에는 바울의 이름이 올라 있을 것이다. 나의 삶에도 부모님을 비롯하여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이름이 나올 것이다. 나도 다른 사람의 삶에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아 있기를 바란다.



이슬 같은 은혜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잘 오지 않는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지만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토양이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한 여름에도 식물은 자란다. 밤마다 이슬이 내리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에서 곡식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이슬은 절대적이다. 모든 식물을 살게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은 많다. 그러나 이슬이 내리지 않는 날은 없다. 그리고 이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한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며 하나님이 과연 내 곁에 계시는지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 이슬처럼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은혜로 적셔주신다. 뜨거운 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에도 아침이면 풀과 나무에 생기가 충만해진다. 이슬은 잎사귀를 마르지 않게 한다. 이슬은 나무에 생기가 돌게 한다. 지금 우리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 제4차 2010년 교회지킴이 숙직제 순서 ★

일자	요일	성명	비고	일자	요일	성명	비고
2/7일	주	박미정	010-3619-0362	5일	금	최상운	010-5059-8475
		이정자	010-5509-0809	6일	토	김요상	011-602-0724
8일	월	서점순	010-8944-8640	7일	주	김희중	010-5468-1670
		김숙자	010-2360-5214	8일	월	진영만	010-5605-2902
9일	화	김동해	019-406-2586	9일	화	김태석	010-8777-2827
		방정원	010-9474-2787	10일	수	김용덕	010-2636-2114
10일	수	진윤희	010-7488-9851	11일	목	오광록	010-7603-9851
		장미옥	010-7704-9917	12일	금	유영만	010-3629-3477
11일	목	문채숙	010-5643-0198	13일	토	김영근	011-638-1538
		양혜숙	010-6873-2437	14일	주	한만희	011-9739-0484
12일	금	김점자	010-6653-0559	15일	월	손문옥	011-9606-6487
		김숙경	010-8245-5064	16일	화	조윤기	016-681-3784
13일	토	허경자	011-9607-8475	17일	수	한경택	011-633-7200
		방봉순	011-605-3310	18일	목	장기술	011-9604-0577
14일	주	황생자	010-9877-1729	19일	금	최재현	010-6231-4589
		권화숙	010-7708-4315	20일	토	박의하	010-2231-4684
15일	월	김순심	010-7721-3238	21일	주	장승준	010-6609-2782
		유암덕	010-5339-1831	22일	월	이대남	010-2615-5064
16일	화	김정숙	010-2467-2113	23일	화	김재한	011-617-0571
		이귀님	062) 952-8590	24일	수	서진욱	010-5446-5357
17일	수	손종기	010-7283-8291	25일	목	이병권	010-6203-8640
18일	목	최지혁	010-3615-1638	26일	금	박동수	010-5602-7559
19일	금	문종승	010-7617-4070	27일	토	김용신	010-3008-6567
20일	토	김성훈	010-3827-7655	28일	주	임춘진	011-604-8516
21일	주	서항임	018-629-2785			김신자	010-7752-8667
22일	월	전순이	010-2999-7540	29일	월	서금자	016-9225-2602
23일	화	이준호	010-6280-8590			모순자	010-6610-5880
24일	수	김기태	010-6623-8667	30일	화	최옥기	010-4323-7101
25일	목	김문옥	010-2565-2602			유금례	010-9455-9579
26일	금	김명관	011-640-9608	31일	수	이봉순	016-9601-3784
27일	토	이현일	011-625-6945			황정선	010-4627-9608
28일	주	이동만	011-609-0774	4/1일	목	임현옥	010-3907-2360
3/1일	월	곽세종	011-9607-9883			장현자	010-8642-9883
2일	화	송희중	010-4370-7579	2일	금	조선경	010-5469-1670
3일	수	옥 룡	011-616-2360			김복희	010-5539-9919
4일	목	김종철	010-7735-9917				

* 당일 숙직자는 다음날 숙직자에게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를 위해서 기도(기도문), *교회 상황 점검, *교회 문단속



기독교강요

제4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

혼인예식 [제4부 제15장]

이처럼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라는 엄청난 복을 표시합니다. 그러니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어찌 우리의 믿음이 새 힘을 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의 두 번째 목적은,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돕는다는 것이지요. 결혼식을 왜 하고, 결혼반지를 왜 끼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둘이 한 부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공포하는 것 아닙니까? 세례식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고 싶다는 우리의 소원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합니다. 또 세례를 통해 우리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을 증거 합니다. 또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세례 없이 신 앙생활 하겠다는 사람은 결혼식을 하지 않고 동거부터 하겠다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제2절 세례 대한 오해들

항상 그렇듯이 꼭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세례를 단지 군인들의 계급장처럼, 우리가 신앙고백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의 표징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쓰빙글리). 단순한 입문의식이나 서약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다른 성례의 경우에서처럼, 세례를 통해 말씀의 안내를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묵상의 계단을 걸어 오를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비의 은혜에 도달하게 됩니다. 단순한 표징이 아니라, 믿음에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지요.

둘째, 세례의 효력이 물 자체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지요. 물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세례에 힘을 주는 것은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 그 약속들이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세례 받은 다음에 짓는 죄는 그 세례의 힘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기 바로 직전까지 세례를 받지 않고 이릅니다.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아야 평생지는 죄를 다 용서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그러나 세례는 영원한 용서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도장과도 같습니다. 그 도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찍혔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순결하고 그 효력이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에 대한 약속입니다.

넷째, 세례 받은 다음에 짓는 죄는 회개와 열쇠의 힘으로 용서받는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해성사도 그런 오해가 만들어진 발명품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되는 우리의 죄 때문에 괴롭고 실망스러워질 때마다, 단호하게 이미 받은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씻음 받았다는 확신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가 다르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주는 사람이 달라도 교훈이 같으면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교훈을 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1:29). 사도들이라고 해서 이 교훈에 한 자라도 더할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소스톰은 요한의 세례에는 죄의 용서가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조차도 요한의 세례에서는 죄를 용서받을 소망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세례에서는 실제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함으로써 그 두 세례를 미묘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누가의 증언처럼 세례요한의 세례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눅3:3).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요한은 장차 오실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사도들은 이미 나타나신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눅3:16;행19:4).